

“여성은 남성의 옷이요 남성은 여성의 옷”

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이주화 이맘 리더스포럼서 특강

‘수쿠크(Sukuk)’ 법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대통령 하야발언을 하는가 하면, 4월 6일 미국인 목사가 ‘꾸란’을 소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웃종교의 배타적인 모습을 많이 접하는 요즘이다. 이슬람은 기독교, 불교와 더불어 세계인구 1/5가 넘는 세계 3대 종교로 꼽히지만 유독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유대교가 유대인의 종교인 것처럼 이슬람을 마치 아랍인들의 종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아직까지도 이슬람은 우리나라에서 낯설게만 느껴지는 종교이다. 사막과 낙타를 연상하게 히잡을 쓴 여성이 떠오르는 먼 미지의 세계일 뿐이다.

이와 관련해 논란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슬람이란 종교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 등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잡어불교제가 연대는 4월 5일 서울중앙성원 이주화 이맘(예배인도자)를 초청해 이슬람 종교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이슬람은 호전적인 종교가 아니다

서양 사람들은 무슬림들이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슬람교를 전파했다고 선전해왔다. 오랫동안 이슬람이 호전적인 종교인양 묘사하면서 이슬람의 폭력성을 부각시켜온 것이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양의 많은 지식인들조차도 ‘호전적 이슬람’,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즘’과 같은 말을 분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쓰면서 이슬람이 위협적이고 도전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호전성이야말로 이슬람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폭력사태의 근원적 요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이란 말은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1400년의 이슬람 역사에서 이슬람 공동체는 안락으로 화해와 용서, 절충과 합의를 통한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심자군 원정에서처럼 서방과의 충돌과 대립에서 침략행위자는 거의 서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인들 사이에서는 이슬람이 비신도에 대적하는 전쟁을 의무화하고, 단지 비신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적을 살해하라고 명령하는 무자비한 폭력의 종교로 회자되고 있다.

1187년 십자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한 살라딘(1138~1193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슬람은 관용의 종교이고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최상의 가치관으로 교리에 담고 있는 평화의 종교이다.

이슬람의 의미는 평화이며, 하나님의 99개 이름 중 하나도 평화이다. 무슬림들의 일상의 인사말 “앗 살람 알라이쿰(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도 평화를 나타낸다.

평화는 이슬람의 본질이고, 의미적 상징이며, 목적이다. 11~13세기 십자군전쟁에서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무슬림과 유대인에게 저질렀던 대량학살과 포악스러운 약탈행위와는 반대로, 살라딘은 투항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자비를 베풀고 용서와 화합의 선정을 베풀었다. 이러한 그의 기사도적 관용정신은 서양에서도 널리 알려져 사자왕 리처드에 버금가는 정의와 평화의 영웅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일부일처제가 보편적 제도로 인식돼

일부다처제와 무슬림 여성의 낮은 지위 또한 이슬람 세계에 대해 갖는 편견과 오해의 주제이다.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하던 미개사회 제도인 일부다처제가 아직 일부 이슬람 국가에 남아 있기 때문에 무슬림사회가 봉건적이고 남녀불평등 사회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무슬림들은 과거 무슬림 사회의 일부다처제야말로 진정 여성을 위한 제도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많은 현대의 무슬림 법학자들도 이 제도가 차선으로 열려 있는 것이지, 무슬림 사회의 보편적 제도는 일부일처제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서기 624년 우후드라는 전투에서 무슬림 군대가 참패한 뒤 생겨났다. 전쟁에서 많은 남자들이 죽자 무슬림 공동체는 갑자기 수많은 과부와 고아가 발생했다.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한 남자가 4명까지 아내를 맞아 들일 수 있는 일부다처제였던 것이다. 이슬람의 일부다처제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출현한 이 제도가 현대사회에서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점 때문이다. 또 비록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 제도가 법에

따라 관용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근대 이슬람 개혁운동의 선구자인 무함마드 압두(1847~1905)는 이 제도에 관련된 ‘꾸란’의 구절을 재해석하고 현대 무슬림 사회에서 더 이상 일부다처제는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슬람교는 평등의 종교

무슬림들은 인종, 피부색, 언어, 사회적 지위, 빈부의 차이 등으로 차별 받지 않는 사회가 진정한 무슬림 공동체라고 자인한다. 그러나 서방 언론에서는 매우 자주 이슬람 세계가 대표적인 남녀차별 사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남녀가 평등하고 상부상조의 관계임을 ‘꾸란’에서는 “남녀신도들은 서로가 보호자이니라”, “여성은 남성의 옷이요, 남성은 여성의 옷”이라고 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꾸란’은 종교적인 임무와 수행에서도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혼인과 이혼, 여성의 재산권, 상속권도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며 남녀의 동등한 지위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은 기능과 일에서 남성과 여성에 유별을 강조한다. 예컨대, 남성은 경제적 부양의 의무가 있고, 여성은 자녀교육과 가정의 보호라는 의무가 있다. 남녀의 권리는 동등하나 각기 역할과 일의 영역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슬람에서 남녀의 지위가 동등함은 ‘꾸란’에서도 명백히 증명된다.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오늘날 몇몇 이슬람 국가들에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인선 여성들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여성 수상 베론 칼레다 지아,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 그리고 지난 2001년 7월 대통령에 당선된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삶·종교 일치하는 종교임을 이해해야

이슬람과 이슬람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슬람이 단순한 신앙 체계만이 아니라 종교와 세속 모두를 포괄하는 신앙과 실천의 체계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삶과 종교가 일치하는 독특한 가치관의 체계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전쟁, 협상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항상 이슬람의 깃발을 앞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교분리의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온 서구인들이나 우리가 이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이슬람권과 오랫동안 접해왔던 서양이나 미국의 언론을 통해 이슬람 세계를 접하고 굴절된 서구의 프리즘으로 그들의 사회를 잘못 들여다보는 사례가 많았다.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 객관적 시각을 갖고 이슬람 사회의 제도, 관습, 종교, 문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처한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들을 볼 수 있는 문화상대주의라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주화 이맘은?

이맘은 예배인도자라는 뜻이다. 이주화 이맘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국립이슬람대학교 신학대학을 이슬람신학전공으로 졸업하고, 2008년 명지대학교 대학원 아랍지역학과 박사학위를 받았습다. 한국 이슬람교중앙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한국이슬람교 대표이맘(예배인도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⑦ 인도의 불상

옥화사지 석실은 인도와 닮았다



현장 스님이 <대반야경>을 역설했던 옥화사지.

불교의 역동적인 흐름은 구법승들의 여행을 통해 더욱 피어났다. 당나라 시대 중국에서 인도로 구법의 길을 떠났던 현장 스님에 관한 재미난 기록이 있다. 현장 스님은 인도에서 경서, 사리와 함께 마가다국(摩揭陀國) 정각산(正覺山) 용굴(龍窟)의 금불상, 바나라시국(婆羅泥斯國) 녹야원(鹿野苑) 초전법륜상(初轉法輪像) 등을 모사한 불상 7종류를 가져왔다. 당시 인도사회에서 널

20년 동안 인도를 여러 차례 왕래했다. 그의 왕래는 중국·인도간의 외교적 문제만 뿐 아니라 중국에 인도의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역대명화기(歷代名畫記)>의 ‘동도사관화벽(東都寺觀畫壁)’에는 이같은 기록이 있다. “경에서(敬愛寺)의 법당에 보리수나무 아래 소조(진흙으로 만든 상)로 만들어진 미륵보살상이 있다. 인덕(麟德) 2년(665)에 밖으로 내놓았는데, 왕

구법승과 사신들에 의해 들여온 인도 불상

저물던 인도불교, 중국과 한국에서 꽃피워

리 알려진 불상들의 모사본을 가져 온 것이다. 이는 불교의 흐름이 동아시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안에서 북쪽으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옥화사지가 있다. 이 사지는 당 고조가 건립했던 인지궁(仁智宮)을 정관 20년(646)에 확장한 후 옥화궁이라 했다. 영회 2년(651)에 궁을 폐하고 옥화사로 개칭했다. 현경 4년(659) 현장 스님이 이곳에 변경원(變經院)을 설치하고 <대반야경> 600권을 역설했다. 현재 옥화사지의 대부분이 복원된 상태이며, 현장기념관이 건립돼 있다. 원래 옥화사지는 발굴 후 유지(遺址)를 정지해둔 상태로 풍화되기는 했지만 유지를 둘러싸고 있는 석실들도 제법 잘 보존돼 있는 상태이다. 이 곳 석실은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마치 인도의 사원에 와 있는 느낌이다.

구법승들 외에 사신들의 왕래도 불교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왕연책(王玄策)은 정관 17년(643년)부터 약

현책이 서역으로부터 그러한 보살상 모습을 딴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아 왕연책이 인도로부터 가져온 도상들이 당시 얼마나 유행했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인도(印度)라는 단어도 현장 스님의 <대반야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 활발했던 문화 교류의 흔적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수·당시대 접어들면서 불교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인도에는 불교가 저물어 가고 있었지만 중국으로 넘어온 불교는 새로운 종파의 시대를 맞았고, 새로운 인도불상 양식의 수입은 불교문화의 세계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설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tal Echo
- 고품질 무선마이크
- DX-707 스텐드 마이크
- 법당 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06LC
- 고품능 탁상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특징: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250,000원 (택배비 포함)

◆가격: 500,000원 (상차비 포함)

◆가격: 65,000원 (택배비 포함)

◆가격: 135,000원 (일반형) 175,000원 (고급형)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양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 02)3147-2020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대 구 053-566-1116	울 산 052-260-1037
부 산 051-441-0111	경 남 055-932-5877	제 주 064-755-7588	전북익산 063-854-1060
지리산 063-635-5112	해운대 051-757-999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